

‘스마트병원·해외 진출’로 글로벌 매출 1조 시동

김남기 대표 “2030년까지 달성”
동남아부터 해외 진출 본격 추진
중동·미주지역 순차적 진출 계획
첫 비만 특화 스마트병원 구축도



비만 특화병원 365mc가 글로벌 시장 진출과 스마트 병원을 장기 플랜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15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된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 ‘로드 투 더 퓨처’라는 주제로 미래 발전 플랜을 발표하는 김남철 365mc 네트워크스 대표이사(왼쪽 작은 사진)와 비만연구, 진료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며 최근 개원한 대구 365mc병원. 사진제공 | 365mc

‘글로벌 시장 진출과 스마트 병원’, 비만 특화병원인 365mc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발전 장기 플랜의 두 가지 키워드다. 365mc는 지난 15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원 19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남철 365mc 네트워크스 대표이사는 “로드맵 투 더 퓨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 비만진료시장 2026년 6조 원대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365mc는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해외환자 입국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도 올해 5월까지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나 성장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져 병원측이 고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의 만족율을 기록했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365mc의 연간매출은 역대 최고인 800억 원 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병원 측

은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해도 아직 연간매출이 채 1000억 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8년 후 매출 1조 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목표설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365mc는 다소 ‘희망사항’으로 보이는 장기플랜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있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매출 1조’ 달성의 첫 전략은 해외시장 진출이다. 김남철 대표이사는 기념식에서 “좁은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1000억 매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장 규모가 국내 10배 이상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만 충분히 갖춘다면 1조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통계조사회사 리서치 &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비만진료 시장은 지난해 32억 달러(약 2조 9780억 원)에서 2026년에는 46억 달러(약 5조 9561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는 지역은 동남아다. 코로나 봉쇄가 이어지는 중국을 제외하고 지리적 접근성, 시장 규모, 미래 전망, 한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남아를 최우선 진출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동남아의 비만시장 규모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베트남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해 100명 당 19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나타났다. 우로모니터는 베트남의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7억 달러(약 90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65mc는 동남아 진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이어 중동, 미주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진출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공동개발 협업

두 번째 전략은 세계 첫 비만특화 인공지능 스마트 병원 구축이다. 스마트 병원은 최근 국내 의료기관이 앞 다투어 미래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는 과제다. 365mc는 여기에 그동안 축적한 전문 의

료 노하우를 접목해 독자적인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춘다는 발전목표를 세우고 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무기록부터 상담진료, 나아가 고객의 귀가 후 홈케어까지 이어지는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어 해외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국내외 전문기관과 활발한 협업을 진행 또는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전문기업 아크릴 등과 손잡고 비만 특화 스마트병원 시스템 공동개발에 나섰다.

한국기계연구원과는 인공지능 지방흡입 로봇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경희의과학연구원과도 디지털 비만치료제 개발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식이영양학과와 식품관 유행분석 연구를 통해 맞춤형 식단 및 비만 치료를,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과는 여성 특화 지방흡입 및 비만치료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고개 1cm씩 숙일 때마다 목뼈 최대 3kg 하중
목 빠르고 두통·팔 저릴때 목디스크 가능성

경추(목뼈)는 잘못된 자세로 인해 손상을 입기 쉬운 신체 부위다. 무거운 머리 무게를 하루 종일 버텨야 하는 구조 특성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보통 5~6kg 정도인데 머리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경추 내구도가 그리 튼튼하지 않다.

고개를 1cm씩 숙일 때마다 목뼈에 최대 3kg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약 20~25도를 숙이면 목 근육에 부담이 4배 이상 증가한다. 경추의 정상적인 C자형 곡선이 변형되고 나이가 디스크 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조직인 디스크가 파열돼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초기 증상은 목이 빠르고 결리는 느낌을 받는다. 아올러 목 움직임의 제한도 나타난다. 두통, 팔 저림, 손 저림 등의 증상도 겪을 수 있다. 방치할 경우 상지 마비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목디스크 예방 초기라면 C-arm 신경치료, DNA주사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C-arm 신경치료는 컴퓨터영상장치인 C-arm을 이용해 통증을 느끼는 병변부위에 약제를 주입하는 치료방법이다. DNA주사는 염증을 개선하며 주변 조직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 습관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 목 주변 근육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과로를 삼가야 한다. 문진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는 것이 좋다. 잠을 잘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광주에스치뷰통증의학과의원 정진호 원장



유한양행 “혁신신약으로 글로벌 제약 50대 기업”

유한양행이 창립 96주년을 맞아 글로벌 톱 50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밝혔다. 조옥재 유한양행 사장은 20일 서울 대방동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96주년 기념식에서 “우리의 목표인 글로벌 제약 50대 기업이 되기 위해서 혁신신약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 개발 중인 혁신 신약 펙라자의 글로벌 임상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하고 제2, 제3의 펙라자를 조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고려대 백신혁신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본관 유광사홀에서 대한백신연구소와 공동으로 ‘고려대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설립기념 및 2022 Korean Interscience Working Group on Influenza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우주 백신혁신센터장과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연구소 초대 사무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코로나 팬데믹 현주소와 전망, 향후 다가올 신종 감염병의 대비 및 혁신적 백신개발 전략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대 의료원은 지난해 정릉 고려대 메디사이언스 파크에 백신혁신센터를 발족했다.

동화약품 후시드 크림, 출시 7개월만에 100억 돌파



후시드 크림

동화약품의 기능성 화장품 ‘후시드 크림’이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억 원을 달성했다. 후시드 크림은 지난해 10월 GS홀쇼 핑서 단독 출시된 이후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40만 개를 돌파했고 현

재까지 77만 개의 판매고를 올렸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재의 더마 코스메틱 제품으로 피부 밀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후시덤 성분은 38.9% 함유하고 있다. 강력한 주름 개선 및 주름 유발 완화 기능으로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며 민감한 피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23일 (목) 음력: 5월 2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썰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변인을 믿지 마라.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기운이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책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취침 시 북서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야심이 너무 크고 계획도 웅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자제하라. 협력자를 얻으면 의외로 발전하고 대성할 수 있는 운이다. 선배나 웃어른의 의견을 참작하면 크게 도움 되는 일이 있겠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일의 성사가 어려운 날이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자유분방한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신중하고 물기를 거둬야 한다.	자신의 노력이 통하지 않고 가을바람에 날기버전진 나무가 주위에 떨고 있는 상태로 기력이 회복되고 운세가 호운으로 전환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반드시 재산상의 손실을 본다. 생각지도 않은 상속의 운도 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 꿈이 큰 날이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운 것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해야 한다. 급속히 성장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든 앞장서지 말라.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오늘의 날씨			23일 (목)		
서울 70/100	인천 70/100	춘천 60/80	23 25	21 24	21 25
강릉 20/80	대전 60/70	전주 60/90	24 30	23 27	23 27
광주 80/90	대구 20/60	부산 30/60	23 28	23 31	22 25
창원 30/60	제주 3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3 27	24 31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5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동아일보사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